

우리 아빠 화이팅!

신갈초등학교 2학년 4반 홍연진

“아! 잘 먹었다. 또 하나 먹으러 갈까?”

“안 피우면 안되세요?”

우리 아빠가 식사 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에 우리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고 꼭 한마디하신다.

우리 아빠는 식사를 하신 후, 속상할 때, 술을 잡수실 때 베란다로 나가셔서 담배를 피우신다. 그래서 우리 집 베란다 테이블 위에는 재떨이, 라이터가 놓여있다.

‘아빠는 담배가 정말 맛있을까?’

나는 정말 궁금했다. 그래서 아빠께 여쭙어 보았다.

“이것은 구름과자야. 너희들은 과자 먹지? 과자보다는 맛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맛있어.”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빠의 구름과자가 이해되지 않았다. 냄새도 고약하고, 무엇보다 아빠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그 구름과자를 아빠께서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엄마께서도 항상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신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빠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마 그것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나서부터 아빠께서도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아빠께서 일찍 들어오셔서 우리 가족은 과일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게 되었다.

몇 명의 아저씨들이 담배를 끊기로 마음먹고 ‘금연학교’라는 곳에 입학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담배를 피우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금연학교에

서 담배를 십 년 동안 피운 사람의 ‘폐’를 보여주고, 또 20년 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의 몸을 차례차례 보여주었다.

10년 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의 폐는 조금씩 조금씩 갈 부분이 까만 색으로 변하고 있었고, 20년 동안의 폐는 까만 색이었다. 그런데 30년 동안 담배를 피운 아저씨의 폐는 하얀색, 폐가 없다는 말에 우리 가족은 웃고 말았다. 그때 엄마께서는 고개를 돌려 아빠의 가슴을 쳐다보시고 한숨을 내쉬셨다. 아마 우리 아빠께서도 그 때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지금 우리 아빠의 폐는 어떤 모양일까? 우리 아빠의 가슴이 까만 색으로 되기 전에 빨리 무서운 담배를 끊어야 할텐데 걱정이 되었다.


그 다음날, 우리 아빠께서는 저녁을 잡수시고는

“아! 잘 먹었다. 나 차 한잔 줘.” 하시면서 베란다로 가지 않고 소파에 가서 앉으셨다. 그런 아빠를 보시고 엄마께서는

“연진아? 아빠께서 폐가 없어질까봐 겁이 나는가 봐.” 하고 웃으셨다.

지금 우리 집 베란다에는 재떨이와 라이터가 없어졌다. 요즘 우리 아빠께서는 담배와 한판 승부를 벌이고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아빠께서 담배를 피우지 않아 너무 좋다. 내 과자를 자주 빼앗아 먹어서 조금 미울 때도 있지만, 나는 우리 아빠께서 꼭 무서운 담배를 이겨서 끈기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빠께 응원해 드리고 싶었다.

“우리 아빠! 화이팅!” 이라고…… 



없어도 되는 물건 담배

서울유석초등학교 3학년 2반 이성배

“다녀오셨어요?”

나는 늦은 시간에 퇴근해서 돌아오신 아빠에게 인사를 했다. 아빠는 엄마가 집에 계신지만 물으시고는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우리 엄마는 누구나 목소리만 들으면 다 아는 유명한 성우인데, 밤늦은 시간까지 녹음 있는 날이 자주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다. 그런데 그 날도 엄마가 늦게 오신다고 전화가 왔다.

“성배 아빠, 그 담배 좀 끊을수 없어요?”

밤늦은 시간에는 좀처럼 큰소리를 내지 않는 엄마의 화내는 소리에 놀라 나는 눈을 번쩍 떴다.

“베란다에서 피우는데 왜 쫓아 다니며 잔소리야!”

아빠의 화내는 소리도 엄마가 화내는 소리만큼 컸다.

“베란다에서 피우면 담배 연기가 실내로 안 들어오는 줄 알아요? 목이 밥줄인 사람한테 담배 연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면서 왜 협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중요한 녹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엄마의 ‘금연타령’은 그 날 뿐만이 아니었다. 아빠에게 제발 담배 좀 끊어달라는 엄마의 부탁은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는 줄줄 외울 수도 있을 정도의 얘기다. 하지만 그 날처럼 엄마 아빠가 담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며 싸운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의 소리가 작아졌고 싸움도 끝이 나서, 나는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새벽에 잠을 자기 시작한 나는 늦잠을 잤다. 그 날은 엄마가 날 깨우지 않아서 그만 늦잠을 잔 것이다. 나는 새벽에 엄마가 아침 일찍 중요한 녹음이 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엄마에게 늦잠을 자서 피아노 학원을 못 갔다는 말을 할려고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깐 핸드폰 벨소리가 안방에서 들렸다.

“엄마가 핸드폰을 놔두고 가셨나?”

나는 엄마가 핸드폰을 놔두고 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안방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다.

“엄마, 왜 집에 있어요?”

“성배니?”

나는 엄마의 목에서 나오는 괴물같은 소리를 듣고는 너무 깜짝 놀랐다. 엄마는 밤사이엔 후두염이 생긴 것이라며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타왔으니까 걱정 말고 어서 학원에 가라고 하셨다.

나는 그 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학원들을 전부 다녔지만, 엄마는 그 날은 물론이고 거의 보름 정도는 일을 못하셨다. 결국 엄마가 중요한 녹음이라고 한 것이 엄마 목소리를 흉내낼 줄 아는 다른 후배에게 넘어갔고, 그뒤에도 다른 녹음들이 전부 다른 후배들에게 넘겨졌다.

엄마는 그 때 굉장히 속상해 하셨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 후두염에 걸리길 잘 했다고 하신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아빠가 담배를 끊으셨기 때문이다. 처음엔 아빠도 엄마의 목에 생긴 병이 담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엄마와 함께 몇 번 병원에 다니신 뒤로는 엄마의 말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담배 때문에 하루만에 후두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랐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 집에서 담배 연기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 번에 방배동 할아버지댁에 갔을 때 할아버지께 아빠가 담배를 안 피워서 집안에 깨끗하고 상쾌한 공기가 가득하고, 엄마의 목소리도 더욱 깨끗하고 상쾌해졌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한의사이신 할아버지 말씀이 집안의 공기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폐와 피도 깨끗하게 되었을 거라고 하셨다.

학교 선생님께서도 나쁘고 필요 없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다 없어진다고 하셨다. 그런데 담배는 우리에게 나쁜 일만 하는데 왜 담배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